

#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 및 영향 요인\*

Housewives' Types Classified by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 사 김 유 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Kim, Yoo-Ky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Ki-Yo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housewives based on their perception of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00 full-time housewives with preschool child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are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four housewives' types can be categorized by the level of those 3 dimensions. The name for the types was given as 'sticking to one's belief type', 'taking importance to early stimulation type', 'conforming to and imitating others type', and 'believing blindly in education commodity type'.

Second,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shows that 'housewives' education level

\* 본 연구는 2006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유경(yk\_kim1@hanmail.net)

and their education-related values' element was the most crucial in classifying the housewives, and 'considering child's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home environment' element was the n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parents with preschool child. Parents' education programs differentiated by the objects and the problems should be developed ; which are suitable for each housewives' type.

**Key Words :** 취학전 교육상품(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기대편익(benefits sought), 주부유형(housewives' type)

## I. 서론

### 1. 문제 제기

우리 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은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특히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지나친 교육열의 결과 사회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은 학력 인플레이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학력이 주는 경제적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와 투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격획득을 위한 수단적 의미가 커짐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또한 변화하여 '매니저'로서의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다(이숙인, 2001). 전업주부조차도 자녀가 점점 커감에 따라 자녀교육에 매진해야 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들 호소하나, 이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일과 자녀들의 이동을 돕는 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자녀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 중 대학진학을

앞둔 중고등학생의 과외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어 왔으며 현재도 비용이나 심각성 면에서 가장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근 들어 사교육 열풍이 점점 더 어린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집착, 특히 명문대학 입학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점점 더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낳게 되어, 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이 문제시되더니 나아가서는 영유아기, 심지어 태교 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취학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분화됨으로 인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방식이 한층 다변화되었는데, 이는 교육양식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교육이 개인이나 집단별 선호와 취향, 소비 패턴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함인희 외, 2001). 따라서 자녀의 교육상품에 있어서도 주부의 선택행동의 저변에 깔린 기대편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상품의 선택과 소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추상적인 가치관과 구체적 소비 행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소비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함인희 외, 2001). 교육상품의 소비에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소비, 경쟁 심리에서 출발하는 모방 소비, 집단에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동조소비 등의 성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상품도 소비 대상 중 하나로 인식하여 이를 선택하는 주부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근거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교육상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개인 내지 가계의 소비의 한 부분이란 점에서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소비가치를 행동의 근거로 파악하되, 한편 자녀교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의 소비와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 관련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또한 행동의 근거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학전 자녀의 조기·특기교육이 과열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기교육의 문제를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주부의 기대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을 파악하고, 기대편익의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주부들을 유형화하여 유형화된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밝히고자 한다. 기대편익에 따라 주부를 유형화함으로써 주부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교육

의 방향과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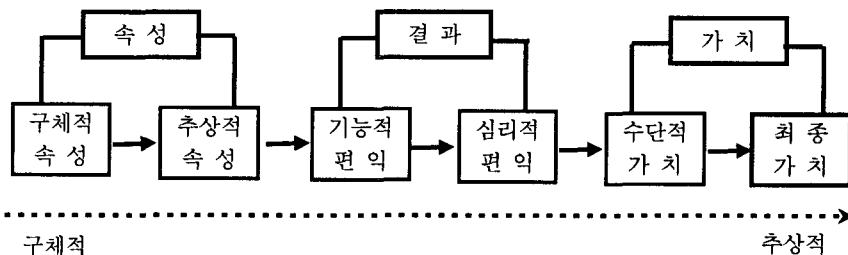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기대편익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소비자의 시장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쉘스 등(Sheth et al, 1991)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가치들을 통합하여 소비와 관련되는 가치만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또는 호기심 가치, 상황적 가치 등의 다섯 가지 소비가치로 분류된다.

쉘스 등의 소비가치 분류는 이제까지의 가치 연구를 종합하여 소비와 관련된 가치만을 추출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측정상의 어려움 및 각 소비가치가 명확히 잘 구분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소비가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기는 하나,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가치관과 소비행동 간에 관련이 있음은 소비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밝혀졌으나,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출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에 직접 연결시켜 가치관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적 원인과

(그림 1) The-Means-End Chain Model



출처 : Peter, J.P. & Olson, J.C.(1987), Consumer Behavior :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동기를 제외함으로써 논리적인 비약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안소현 외, 2000).

따라서 소비가치를 구체적 구매 및 소비 행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추상성 수준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갖는 개념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 가치체계에 관한 설명은 Peter & Olson(1987)의 수단-목표 사슬 이론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제품을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속성들의 집합체이지만, 이는 생산자 관점에서의 사고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제품이 제공하는 편익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때문이며, 이 편익보다 더 추상적인 목표가 가치이다(이학식 외, 1992).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의 속성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편익을 추론하거나 연상하고, 이 편익과 가치를 연관 짓는 인지 작용을 통해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달성한다.

이 모델의 가장 낮은 단계인 구체적 속성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말하며, 그 다음 단계인 추상적 속성은 보다 주관적이거나 상표와 관련된 특징을 말한다. 결과는 제품속성과 소비자행동의 최종 목표인 가치를 연결시키는 단계로서, 제품 구매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며, 제품 사용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인 기능적 편익과 간접적이며 상징적 결과인 사회심리적 편익으로 나뉘어진다.

제품이 소비자가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익을 가지고 있고 상품이 제공하는 효용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효용과 맞아떨어질 때 소비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Day, 1990; 안소현 외, 2000에서 재인용).

기대편익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시장세분화 연구의

일환으로 편익세분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현화, 1998; 손준상, 1984; 신병철, 1995; 윤두진, 1998; Calantone & Alan, 1978; Minhas & Jacobs, 1996; Haley, 1984), 최근 들어 의류학 분야에서도 의복의 기대편익(추구혜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고애란·남미우·조윤정, 2002; 김미영·이은영, 1991; 김지현·홍금희, 2000; 류은정·임숙자, 1998; 박혜원, 1997; 안소현·서용한·서문식, 2000; 이승희·임숙자, 1998; 이정화, 1997; 임영자·류은정, 2001; 최일경·고애란, 1995; 홍희숙, 1996, 2001; 홍희숙·고애란, 1996; 황진숙, 1998, 2003; Shim & Bickle, 1994).

위에서 살펴본 기대편익의 개념은 동기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왜 ○○을 하는가’ 혹은 ‘사람들이 ○○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동기(motivation), 욕구(needs), 이유(reasons), 만족(satisfaction)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가 되어왔는데, 경험적 연구들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크게 구분되지 않은 채 유사성을 가지고 혼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로 하여금 교육상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자로서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교육상품이라는 특정 상품 선택의 동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기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추상적이며 또한 주로 행동의 원인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본 연구는 상품의 선택과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자신이 추구하는 효용과 일치할 것인지 고려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행동의 결과와 원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기대 편익(benefits sought)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특정한 상품-취학전

교육상품-의 선택과 사용이므로,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동기의 개념보다는 상품 평가의 한 차원이며 상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효용인 기대편익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

기대편익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 중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 연구로는 김현화(1998)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용 학습지 구매시의 기대편익으로 창의력·응용력 추구, 학습에 흥미 유발 및 학습 태도 형성, 기초 학습 능력 배양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기대편익별 유형화 집단 간에는 구매고려시의 기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창의력/응용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기준들에 비해 가격이나 대금지불방식, 방문교사 유무에는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아 품질지향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단순 기초 학습능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전과목인지 단일과목인지 여부 및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방문교사는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구매고려기준으로 삼았으며, 학습의 흥미 유발과 학습 태도 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학습지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나 전과목학습지인지 단일과목학습지인지 여부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였다.

김유경, 이기영(2004)의 연구에서 취학전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은 F.G.I.와 요인분석을 통해 동조와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되었다. 주부들이 취학전 교육 상품에 대해 지각하는 기대편익은 제품의 소비를 통한 심리사회적 편익-자녀교육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준거집단에의 소속감과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기능

적 편익-어린 시기에 다양한 지적 자극을 줌으로써 이후 시기에 얻기 어려운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사회성과 학업 측면에서 취학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3.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 ① 자녀 출생순위

자녀의 출생순위는 선행 연구에서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먼저 Leibowitz(1974)의 연구에서 첫째 자녀는 둘째 이하의 자녀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박미령(1992)의 연구에서 장남의 경우 예정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나나 차남 이하의 경우 장남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편 김유경(1995)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경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 비해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나, 실제 시간 및 금전 투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② 자녀 성별

자녀 성별의 영향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김홍주 외(1998)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학생당 과외비는 남학생(15만3천원)이 여학생(11만6천원)보다 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정수천(1995)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67.8%는 성별의 차이 없이 과외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2.4%는 여아 쪽에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한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민순선(2000)의 연구에서도 남아에 비해 여아의 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1995), 박미희(1998), 양세정·이운금(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자녀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 ③ 자녀수

Leibowitz(1974)는 가계 내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자녀수를 가계 투자의 대리변수로 포함시켰다. 자녀수는 시간 자원 뿐 아니라 재정적 자원에서도 가계 내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키게 된다. 최승애(1995)의 연구 결과 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은 이에 따라 증가하며 생계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김유경(1995)의 연구에서 자녀수는 자녀의 인적 자원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 ④ 주부 학력

한정자(1985)에 의하면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력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경희(1990), 서영숙(1990)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낮은 학부모들은 영양·건강·안전, 비용, 시간 등을 교육기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 반면 학력이 높은 학부모들은 교직원·아동, 교직원-부모 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 등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삼았다. 심숙영(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기본학습기술, 협동, 지식과 관련된 교육목표를 선호하며, 유아교육이 기본 학습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지에 대한 기대편의도 주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여, 창의력과 응용력을 중시하는 유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화, 1998).

### ⑤ 가계소득

많은 연구에서 가계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영숙, 1975; 최승애, 1985; 문숙재 외, 1996; 박미희, 1998; 정영숙, 1996a, 1996b; 양세정·이운금, 1997; 민순선, 2000).

한편 김현화(1998)는 학습지 구독시의 기대편의와 가계소득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창의력과 응용력을 추구하며, 가구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초 학습 능력 배양을 추구하였다. 심숙영(2000)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기본 학습기술, 지식과 관련된 교육목표가 아동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수입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자아감 형성이 유아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본학습 위주의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 ⑥ 거주지역

사교육비의 지출은 서울과 기타 지역 간은 물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웃의 사교육 정도나 이웃과의 정보 교환, 지역의 사교육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교육의 행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문숙재 등(1996)과 이순형·류정순(1998)의 연구에서 도시 거주 가정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미희(1998)의 연구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 2) 자녀 교육 관련 특성 변수

### ① 교육의 선별 기능 지지도

박미희(1998)와 정영숙(1996b)의 연구에서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유경(1995)의 연구에서는 도구적 교육관이 어머니의 교육비 지출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민순선(2000)의 연구 결과는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에 따라 금전투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우선 과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 ② 조기교육 찬성도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 결과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해 전체의 65.1%가 찬성했다. 이기숙 외(2002)에 의하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수록 유아에게 시키는 조기·특기교육의 과목수가 많으며, 시기가 빠르고 비용이 많았다.

### ③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개인의 특성, 능력, 재능, 기술, 외모 등을 포함한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김용재, 1992; 김성희, 1995; 박일규, 1995). Bryant(1992)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의 인적자원을 평가하는가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 및 시간 투자에 있어서의 적절한 방법 및 투자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④ 자녀 반응 고려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나친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학원들을 배회시키는 이유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육아 불안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牧野 가쓰코, 1982, 1983; 鈴木眞由子·柿野茂美, 1998; 일본 국립 교육정책연구소, 2001;

이기숙 외, 2002에서 재인용).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교육이 유아의 능력이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성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데다 주입식,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수동적 학습 성향을 키워주는 것임이 논의되고 있다(장혜순·박경자·조부경, 1994; 박정민, 1987).

## 3) 환경 특성 변수

### ① 교육적 가정환경

가정은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은 학교준비도 또는 학업성취도 및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수록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향상되며, 인지적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들(조성연, 2002; Christenson, 1995; 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6; Moles, 1996; Parker et al., 1997, 1999)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정 내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가정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발달적 자극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통해 부모가 가지는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이 교육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정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② 사교육 이용 편리성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이 사교육 관련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포함되었으나, 조사대상지인 서울 지역을 강남, 서초구와 기타 지역으로 이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자의 교육 관련 근접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는 되지 못하므로 거주지역의 사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로 포함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정의

##### 1) 기대편익

기대편익은 특정 상품 -재화 및 서비스- 을 구매 또는 사용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대편익에 관해 논의함에 있어서, 소비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시 그 상품의 구매 또는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미리 예측하며 이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 2)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주부가 교육의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서, 교육을 개인의 능력 등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출세, 승진, 결혼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한다고 하는 선별가설에 동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3) 교육적 가정환경

교육적 가정환경이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허용적이며 다양한 경험과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의 조직화 정도 및 안정성, 발달을 위한 자극, 언어적 환경, 욕구를 만족시

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 자료의 9개 하위영역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취학전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전업주부로 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부가 그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며, 사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상품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취학전 자녀의 연령은 만 5-6세로 한정하여 여러 연령층의 자녀가 포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의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2) 표집설계

본 연구에서의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http://kapanet.co.kr>)의 2003년 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지역별 지가와 부동산 사이트인 부동산 114(<http://www.r114.co.kr>)의 2003년 7월 아파트 시세표를 참고하여 다단계 층화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동별 토지가격과 아파트시세를 기준으로 상, 중, 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같은 비율(약 33.3%)의 표집대상 비율을 배분한 후 지역별로 해당하는 동을 선정하여 목표 표본수 400명을 할당하였다.

##### 3) 자료 수집

본조사 실시에 앞서 200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보완을 통해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22일간 실시되었다. 방학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나 교육 가짓수 등 교육 관련 특성에 있어서 학기 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대표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학기 중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43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조사도구의 구성

##### ① 교육비 척도

###### 가.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교육기관의 교육비와 기타 교육과 관련된 지출항목이 모두 포함되며, 월평균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지출항목은 한국소비자보호원(1997)과 김홍주 외(1998) 조사의 항목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 ② 사회인구학적 특성

###### 가. 거주지역

조사 대상지역인 서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자녀 교육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만큼 교육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와 강남 8학군으로 특징지어지는 강남구·서초구와 그 외의 지역으로 이분하여 지역 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③ 자녀교육 관련 특성

###### 가. 주교육기관 유형

취학전 자녀의 교육을 위임하는 교육기관 중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및 놀이방, 각종 학원, 스포츠센터 등의 유치부, 유아학교/놀이학교 등의 교육 과정(프로그램) 중 반일제, 종일제 등의 형태로 1일 3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주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주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정규 프로그램에 한정한다.

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어린이집은 보육의 목적이 우선이라면 유치원은 교육의 목적이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또한 교육기관 형태별로 한 반 인원 또는 교사 당 원아 수에 차이를 보이므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기관의 형태가 다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나. 교육 가짓수

현재 대상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의 가짓수는, 주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조기·특기교육·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학원교습, 개인·그룹 교습을 모두 포함하여-의 총 가짓수로 측정하였다.

###### 다.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는 박미희(1998), 민순선(2000)의 척도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교육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결혼, 취업, 승진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지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

1)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에 의한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급하는 보육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운영하며, 유치원이 교육이 주목적이라면 어린이집은 아동을 care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권건일, 2002).

는 .66이었다.

라. 조기교육 찬성도

조기교육 찬성도는 주부가 조기교육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가를 의미하며, '전적으로 반대한다'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는 주부가 취학전 대상 자녀에 대해 주변의 또래 아이들이나 형제들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바. 자녀 반응 고려도

자녀 반응 고려도는 주부가 취학전 대상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 본인의 반응과 의견을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적극 고려한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④ 환경 특성

가. 교육적 가정환경

교육적 가정환경 척도는, Caldwell과 Bradley (1979)가 제작한 가정환경 자극검사(The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 HOME)를 장영애(1986)가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거친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가정환경 자극검사의 검사도구는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발달을 위한 자극, 언어적 환경,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 자료의 9개 하위영역에 대해 총 8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9개 하위 영역이 포괄되도록 24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새로이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인 경우 1점을 주어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더욱 안정적이고 허용적이며 다양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  $\alpha$ 는 .52였으며, 가정학 관련 전공자들에게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나. 사교육 이용편리성

사교육 이용편리성은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의 하위차원을 중심으로 주부를 유형화하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부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변수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및 대상자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주부 연령	20대	14( 3.5)	자녀연령	만5세	188(47.0)
	30대	367(90.0)		만6세	212(53.0)
	40대	26( 6.5)		계	400(100)
	계	397(100)	자녀성별	남	186(46.5)
	평균(세)	34.5		여	214(53.5)
주부학력	고졸	76(19.3)	총자녀수	남	186(46.5)
	전문대졸	38( 9.6)		여	214(53.5)
	대졸	241(61.2)		계	400(100)
	대학원이상	39( 9.9)		1명	107(27.2)
	계	394(100)		2명	262(66.5)
월소득	200만원이하	49(12.4)	3명	25( 6.5)	
	201-300만원	114(29.0)	계	394(100)	
	301-400만원	109(27.6)	평균(명)	1.8	
	400만원 초과	122(31.0)	남편직업	전문직	36( 9.2)
	계	394(100)		경영관리직	142(36.3)
평균(원)	3,440,000	전문기술직		37( 9.5)	
자산	1억이하	56(17.0)		사무직	81(20.7)
	1억1천-2억	73(22.2)		자영업	83(21.2)
	2억1천-3억	68(20.7)		판매직/생산직	10( 2.6)
	3억1천-5억	75(22.8)	은퇴·무직	2( 0.5)	
	5억초과	57(17.3)	계	391(100)	
	계	329(100)	거주지역	강남구/서초구	121(30.3)
평균(원)	344,800,000	기타 구		279(69.7)	
			계	400(100)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

김유경, 이기영(2004)의 선행 연구에서 만 5, 6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이를 동조,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하위차원을 토대로 주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만 5,6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5인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1차로 기대편익에 관한 2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가정자원관리 및 소비자학 전공자들의 자문을 통해 이 중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6문항을 제외하고 19개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재구성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으로 묶였으며, 각각을 내용에 따라 '동조', '조기 자극', '취학 준비'로 명명하였다(김유경·이기영, 2004).

1)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

동조,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세 가지 기대편익의 하위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차원의 선택·조합에 의해 가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수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여덟 가지가 되나, 유형화의 목적이 다수의 개별 사례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은 수의 군집으로 축약하여 연구된 현상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므로, 유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유형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Miller & Olson, 1990:68-86; 성미애, 1998:75). 또한 이 연구에서 실시될 판별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가 독립변수의 개수보다 커야 하며, 판별분석의 분류정확률(hit ratio)을 고려하여 집단의 빈도수가 되도록 균형을 이루는 집단 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영희, 1995:60).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가능한 집단의 수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각 경우의 빈도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표 2>), 세 차원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네 집단으로의 유형화가 타당한지를 밝히 고자, 이 네 집단이 유형화의 기준이 된 동조와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세 차원 점수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도록 분류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분류분석(Duncan Multiple Range-Test : DMR-Test)을 실시한 결과 세 차원 모두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의 명칭

먼저 유형 1은 세 차원의 표준화된 점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교육상품을 통한 세 가지 하위 차원의 편익 중 어느 것에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신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유형 2는 세 차원의 점수가 조기 자극 차원의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되 나머지 두 차원-동조와 취학 준비-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 유형은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해 조기 자극의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유형이므로, ‘조기 자극 중시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유형 3은 동조 차원의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나, 조기 자극과 취학 준비 차원의 점수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이 유형은 취학전 교육

<표 2> 주부 유형의 집단수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집단	빈도(부호)	집단	빈도(부호)	집단	빈도(부호)	집단	빈도(부호)	집단	빈도(부호)	집단	빈도(부호)
1	91 (- - -)	1	51 (- - -)	1	76 (- + +)	1	70 (+ + +)	1	10 (- - -)	1	98 (- - -)
2	180 (- - -)	2	98 (- + -)	2	55 (- - -)	2	22 (- - -)	2	80 (+ - +)	2	66 (+ - -)
3	129 (+ + +)	3	127 (+ - -)	3	100 (- - -)	3	53 (+ + +)	3	30 (- + -)	3	68 (+ + +)
		4	124 (+ + +)	4	63 (+ + +)	4	111 (- - -)	4	65 (+ + +)	4	29 (- - -)
				5	106 (+ - +)	5	93 (+ - +)	5	53 (+ + +)	5	43 (- + +)
						6	51 (- + -)	6	62 (- - -)	6	48 (- - -)
								7	100 (- - -)	7	6 (- - -)
								8		8	42 (+ + +)

\* 표에 제시되어 있는 +, - 부호는 동조,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순으로 편익 점수를 표준화 시킨 것임.

상품으로부터 조기 자극이나 취학 준비의 편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단지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또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교육상품을 선택, 소비하는 동조적 성향이 강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조모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유형 4는 세 차원의 점수 양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교육상품을 통한 편익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은 교육상품의 소비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명칭을 ‘교육상품 맹신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 3)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의 판별요인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을 분류해 낼 수 있는 변수를 밝히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자녀 출생순위, 자녀 성별, 총 자녀수, 주부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역), 자녀교육 관련 특성 변수(교육의 선별가능 지지도, 조기교육 참성도,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녀반응 고려도) 및 환경 특성 변수(교육적 가정환경, 사교육 이용편리성)를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Z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dots \dots \dots + \beta_i X_i$$

(Z = 판별점수,  $\beta_i$  = 판별계수,  $\beta_0$  = 절편,  $X_i$  = 독립변수)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50 이하로 높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를 판별식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한 판별분석은 각 유형의 변량-공변량 행렬(분산)이 동일한 모집단의 변량-공변량 행렬로부터 추출되어 합리적으로 단일한 오차추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양병화, 1998, 136-137),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통계치인 Box's M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Box's M의 유의도는 .106이므로 본 판별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별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본 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추출된 세 개의 판별함수 중 함수 1,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함수 1에 의해 집단구분이 가장 잘 분류되어 집단 분류의 69.8%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함수 2가 20.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집단 판별력이 있는 독립변수가 2개의 독립변수군(群)으로 묶여 집단분류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 of variance)	정준상관 (Canonical corr.)	유의도 (Sig.)
1	.270	69.8	.461	.000
2	.080	20.8	.273	.008
3	.036	9.4	.187	.228

4) 판별함수 및 판별계수의 해석

다음으로 <표 4>에는 추출된 두 개의 판별함수와 각 변수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각 개별 변수가 어떤 함수에 포함되어 집단을 구분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판별부하량에 따르면, 함수 1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 및 모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은 어머니의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와 교육이 선별기능을 가진다고 믿는 도구적인 교육가치관, 그리고 주부 본인의 학력에 따라 가장 잘 판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함수 1은 ‘모의 학력 및 가치 특성’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 요인이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차이를 69.8% 정도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함수 2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자

녀 반응 고려도,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교육적 가정환경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공통된 속성에 따라 ‘자녀특성 고려 및 교육적 가정환경’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함수 2의 경우는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차이를 20.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특성

1)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특성

여기서는 앞서 판별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각 집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요약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일원분산분석의 추후검증(DMR-Test)을 통해 어느 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표 4> 판별부하량

변수	함수 1	함수 2	부분변량 F (유의도)
조기교육 찬성도	.686	.282	16.539 ***
주부 학력	-.369	.250	5.456 **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341	-.117	4.258 **
자녀반응 고려도	-.179	.680	5.666 **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020	.548	4.081 **
교육적 가정환경	.065	.530	3.870 *
자녀 출생순위	.197	-.006	1.292
자녀수	-.134	.069	.700
거주지역	.129	.254	1.189
가계소득	-.054	.175	.951
자녀 성별	.051	.205	.738
사교육 이용편리성	-.001	.171	.918

\* p <.05 \*\* p <.01 \*\*\* <.001

<표 5> 주부 유형별 설명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유 형	소신형	조기자극 중시형	동조모방형	교육상품 맹신형	F값
		(51)	(98)	(127)	(124)	
조기교육 찬성도		3.28(.88) a	3.49(.72) a	3.27(.80) a	3.96(.79) b	18.650***
주부 학력 <sup>가</sup>		15.52(1.88) a	15.69(1.59) a	15.28(1.71) a	14.70(1.94) b	6.189***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4.07(.60) a	4.19(.62) ab	4.20(.53) ab	4.35(.46) b	3.837*
자녀반응 고려도		3.61(.49) a	3.53(.54) a	3.27(.66) b	3.31(.64) b	6.445***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3.24(.43) a	3.45(.75) b	3.13(.46) a	3.27(.69) ab	4.926**
교육적 가정환경		18.61(2.23) a	17.74(2.84) ab	17.09(3.03) b	17.66(3.06) b	3.412*

\* p <.05 \*\* p <.01 \*\*\* <.001

가) 주부 학력은 총 교육연수로 표기함

한편 각 유형들의 특성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위에서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판명된 변수들 외에 교육 환경과 실태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변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교육적 가정환경 변수를 그 하위 차원인 물리적 환경 및 경험, 가정의 조직화 및 안정성, 발달을 위한 자극, 정서적 분위기의 네 차원으로 세분하여<sup>3)</sup>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자녀교육 관련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교육비, 생활비 중 교육비의 비중 및 교육비 부담도, 교육 가짓수 및 빈도, 주교육 기관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부 유형에 따라 자녀 교육의 양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일원분산분석과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5>와 <표 6>의 결과에 따라 기대편익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신형

소신형은 전체의 12.8%를 차지하며, 이 유형에 속한 주부는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 및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네 유형 중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의 반응과 의견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중간 수준으로, 조기자극 중시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교육적 가정환경 점수는 동조모방형이나 교

5) 이은혜 외(1982)의 하위차원 분류에 의거함

육상품 맹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하위차원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물리적 환경 및 경험의 제공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발달적 자극과 정서적 분위기는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 유형의 총교육비 및 유치원비는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육상품 맹신형에 비해 낮았다.

이 유형의 주부들은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교육상품을 통한 편익에 대해 기대가 낮은 유형인만큼, 물리적 환경과 경험의 제공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 스스로 자녀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극을 제

공하며 허용적이고 온화한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데다 자녀의 반응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나 교육 가짓수 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현재의 교육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조기자극 중시형

조기자극 중시형은 전체의 24.5%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표 6〉 주부 유형별 관련 변수들의 차이

변 수		집 단	전체 표본 평균 (%)	소신형	조기자극 중시형	동조모방형	교육상품 맹신형	값/ $\chi^2$ 값
				(51)	(98)	(127)	(124)	
교육적 가정환경	물리적 환경/경험		7.06	7.22 ab	7.38 a	6.86 b	6.96 ab	3.768*
	조직화 및 안정성		2.11	2.18	2.21	2.06	2.07	.793
	발달적 자극		4.25	4.55 a	4.17 ab	4.10 b	4.34 ab	2.723*
	정서적 분위기		4.32	4.59 a	4.14 b	4.29 ab	4.38 ab	3.247*
교육비	총 교육비		403.59	336.63 a	430.77 ab	381.98 ab	432.25 b	3.648*
	유치원비		242.75	214.75 a	251.87 ab	226.39 ab	264.16 b	2.750*
	유치원 외 교육비		161.34	121.88	180.92	155.59	168.10	2.083
	생활비 중 교육비 <sup>가</sup>		17.90	16.13 a	17.46 ab	16.70 ab	20.43 b	3.029*
	교육비 부담도 <sup>나</sup>		2.78	2.60	2.78	2.82	2.80	1.324
교육 양	교육 가짓수		2.65	2.00 a	2.59 b	2.74 b	2.86 b	2.913*
	주당 교육 횟수		4.30	3.13 a	4.19 b	4.50 b	4.65 b	2.788*
	교육 양 평가	부족하다	(27.5)	( 9.8)	(20.4)	(30.7)	(37.1)	23.978**
		적당하다	(58.3)	(74.5)	(56.1)	(57.5)	(54.0)	
	많다	(14.3)	(15.7)	(23.5)	(11.8)	( 8.9)		
교육기관	유치원		(68.0)	(56.0)	(63.3)	(79.4)	(65.0)	14.466*
	어린이집		(26.7)	(40.0)	(31.6)	(16.7)	(27.6)	
	영어학원 유치부		( 5.3)	( 4.0)	( 5.1)	( 4.0)	( 7.3)	

가) 생활비 중 대상 자녀 교육비의 비중 (%)

나)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부담된(4점)까지 4점 리커트로 측정



조기 자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나 일반적인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실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황혜신(2001)의 주장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조기교육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조기교육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본인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조기교육의 문제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기숙 외(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조기교육의 시기나 종류, 비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이중성을 보여 주었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의 학력은 대졸 정도로(교육연수 약 16년) 소신형과 함께 네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들은 자신의 취학전 자녀의 능력을 네 유형 중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대상 자녀가 주변 아이들이나 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만큼 조기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 필요를 더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교육적 가정환경 점수는 소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정환경 하위차원별로는, 물리적 환경 및 경험 제공은 네 유형 중 가장 높으며, 발달적 자극의 제공이나 정서적 분위기는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능과 학업성취는 가정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부모가 실제로 아동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는가에 달려있다(Bloom, 1964; 조성연, 2002)는 점에서,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조기 자극의 효과에 대해 기대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이며 자율적일 때 유아의 행동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능력도 높게 나타나며,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유아가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며 사회적응력도 높다(LaFrenier, Dumas & Watson, 1972; Schaefer, 1959; 원영미, 1990에서 재인용)는 연구 결과에서 가정환경의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유형의 어머니들이 자녀 발달에 있어서 정서적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교육비나 교육 가짓수는 중간 수준이었는데, 교육 양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많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의 교육 가짓수는 동조모방형이나 교육상품 맹신형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이 유형의 주부들이 자녀의 반응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3) 동조모방형

동조모방형은 전체의 31.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주부는 자녀의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시 자녀의 반응과 의견을 고려하는 정도는 세 유형 중 가장 낮아, 자녀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 또한 네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자녀의 능력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어머니 본인의 불안감과 경쟁 심리로 인해 교육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과도한 학업과제로 인해 유아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모들의 별거나 이혼 다음으로 높다(Breckman & Lichtenstein, 1987; Burrs, Hart, Chaleswort & Kirk, 1990;

Solderman, 1995; 이기숙 외, 2002)는 연구결과를 볼 때 문제시될 수 있는 유형이다.

교육적 가정환경 점수는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기자극 중시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발달에 요구되는 자극을 어머니 스스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교육 가짓수는 교육상품 맹신형 다음으로 많았으나 교육 양에 대해 많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유형의 주부들은 교육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교육상품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높으므로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교육의 가짓수가 많은 편이며, 주교육기관의 선택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보다는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교육상품 맹신형

교육상품 맹신형은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는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의 학력(교육연수)은 평균 14.7년으로 네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이 유형의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며, 자녀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가정환경 측면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교육비는 총교육비와 유치원비 및 생활비 중 교육비 비중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교육 가짓수와 주당 교육 횟수 또한

네 유형 중 가장 많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은 조기교육에 매우 찬성하며,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믿음이 강한 특성을 가지는 유형이므로 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아,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가짓수의 교육을 시키며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을 보이면서도 이 유형에 속한 주부의 40% 가까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자녀의 반응이나 의견을 고려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자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기대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성향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앞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나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 등의 교육 관련 가치관과 어머니의 학력이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학력과 교육 관련 가치관에 따라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에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둘째, 자녀 반응 고려도는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변수일 뿐 아니라, 자녀의 반응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따라 현재 교육의 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근의 조기·특기교육 열풍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 가짓수의 많고 적음 자체보다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양육방식이 문제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유형과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소신형이 어머니 스스로

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유형이라면, 조기자극 중시형은 어머니가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자녀에게 필요한 지적 자극을 교육상품의 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동조모방형은 아이 교육에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기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오해로 인해 주부들이 유아기 발달에 대한 이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아교육 시장의 논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상품의 편익에 대해 맹신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반응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을 고수하는 경우 아이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그에 따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발달과 학습에 대한 내용 및 과잉학습이나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주부를 기대편익에 따라 유형화해 본 결과, 각 유형별로 각기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해결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부모가 가진 교육 가치관이 어떠한지, 자녀의 발달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 주도의 일방적 교육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교육상품에만 의존하고 부모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등등 부모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한 뒤,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좀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먼저 본 연구는 취학전 자녀 교육과 관련한 주부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도 포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대편익을 유형화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는 자녀 연령을 취학을 앞둔 만 5, 6세로 한정하였으나, 조기·특기 교육의 시작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인 만큼 이보다 어린 연령대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업주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상품에서 기대하는 편익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주부의 기대편익에 대한 연구 및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24일

## 【참 고 문 헌】

- 1) 고애란, 남미우, 조운정(2002). 주부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의복추구혜택과 구매관련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0(5), 119-132.

- 2) 김미영, 이은영(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 (3), 321-334.
- 3)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용재(1992).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비 운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 광주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유경(1995).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유경, 이기영(2004). 취학전 자녀의 교육 상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편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95-111.
- 7) 김지현, 홍금희(2000). 남성집단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성향과 정보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43-54.
- 8) 김현화(1998). 편익 세분화에 따른 학습지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0) 문경희(1990). 탁아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민순선(2000).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박일규(1995). 노동경제학. 서울 : 박영사.
- 14) 박정민(1987). 유아대상 가정학습지의 학습내용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서영숙(1990). 어머니의 탁아기관 선택과정 및 탁아기관 질적 요건 인식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9, 119-143.
- 16)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손준상(1984). 소비자편익에 의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신병철(1995). 유아복 시장에서의 편익 세분화와 광고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서울시 거주 가정 주부의 유아복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심숙영(2000).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른 유아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정에서의 학습활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21집, 241-260.
- 20) 양병화(1998). 다변량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21) 안소현, 서용한, 서문식(2000). 의류 구매자의 가치관-추구혜택-제품 속성간의 계층적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652-662.
- 22)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23)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윤두진(1998). 은행 마케팅에 있어서의 편익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학연구 22(3), 153-171.

- 26) 이숙인(2001). “전통담론을 통해 본 어머니”. 여/성 이론 제4호, 35-37. 여이연.
- 27) 이순형, 류정순(1998). 한국 도시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 계층별 불평등과 정책적 함의.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 「교육과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 1-27.
- 28) 이은혜, 장영애(1992). 가정환경자극검사 (HOME)의 타당성 연구. 교육학연구 20 (1), 49-59.
- 29) 이학식, 안광호(1994). 소비자행동론. 서울 : 법문사.
- 30) 장혜순, 박경자, 조부경(1994). 유치원의 학습자 사용 실태 및 내용분석. 어린이교육 12집.
- 31) 정수천(1995). 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비 실태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정영숙(1996a).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1), 1-14.
- 33) \_\_\_\_\_(1996b).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2), 207-222.
- 34) 조성연(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 35) 조영희(1995).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6)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 37) 함인희, 이동원, 박선웅(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 38) 황혜신(2001).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200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39) Bryant, W. K.(1992). Human capital, time use, and other family behavi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3(4), 395-405.
- 40) Calantone, R. J. & G. S. Alan(1978). The stability of benefit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2, 127-133.
- 41) Haley, R. I.(1984). Benefit segmentation : Backwards and forwards. *Journal of Marketing* 38(1), 56-61.
- 42) Leibowitz, A.(1974). Home investments in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11-135.
- 43) Miller, B. C. & D. H. Olson(1990). Types of Marital Interaction : Using Cluster Analysis. In W. D. Thomas & A. C. Marcos(eds.) *Family Variables-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Use-*. Newbur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44) Minhas, R. S. & Jacob, E. M.(1996). Benefit segmentation by factor analysis : an improved method of targeting customers for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14(3), 3-13.
- 45) Peter, N. J. & J. C. Olson(1987). *Consumer Behavior :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Irwin.
- 46) Sheth, N. J., Newman, B. I. & B. L. Gross(1991). Why we buy what we bu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159-170.
- 47) Shim, S. & Bickle, M. C.(1994).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logics, shopping orientation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2(2), 1-12.